**한국 불교 비판 및 나아갈 길**

이도흠(한양대)

**1. 머리말**

고탄 고광영 선생이 진하게 눈에 밟힌다. 막걸리를 마시며 열변을 토하던 입술도, 환하고 해맑게 어린 아이처럼 웃던 얼굴도, 경전을 읽으며 삼매에 든 거룩한 모습도 눈에 선한데 그의 살과 몸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의 머리, 불교에 대한 열정과 능력, 주변 인간에 대한 배려, 오현 스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심, 그것 가운데 어느 하나만 부족하였어도 지금의 불교평론과 유심, 만해축전은 없었다. 그는 불교종파를 떠나 폭넓게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을 이해하는 학구였고, 대중의 마음을 읽어 부처님과 대중을 연계하여 특집으로 엮어내는 탁월한 기획자였으며, 단순히 오자나 문장만이 아니라 오류를 짚어내 필자와 의논하는 유능한 편집자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과 두루 교류하며 그들 안에 내재한 불성을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사람의 편집자’였다. 필자 또한 그가 아니었으면 그리 빠른 시간에 그리 좋은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도반으로 삼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01년에 의상․만해연구원에서 함께 하면서 처음 만났으니 인연을 맺은 지 11년이다. 나이 들어서 만났지만, 금세 의기투합하여 곧 죽마고우처럼 지냈고 서로에게 가장 친한 도반이 되었다. 타락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전락하는 한국 불교에 대해 함께 의분을 느꼈고 밤새워 술을 마시며 대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아마, 둘이 먹은 술을 일시에 쏟아버리면 4대강 공사장의 댐 하나쯤은 터트릴 수도 있으리라.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뭔가를 하자고 조직을 꾸리고 공간을 마련하던 차에 그를 잃어 도반이 죽은 것 이상의 충격이고 슬픔이다. 하지만, 떠난 자가 하려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남은 자의 도리일 터, 그가 이제 이승에서의 고통과 中有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극락으로 왕생하는 날, 그와 함께 모색하였던 한국 불교 중흥의 길을 논하고자 한다.

**2.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한 원인**

한국 불교는 지금 위기에 있다. 소수종교로 전락하여 이제 모두들 우습게 여겼는지 예서제서 발길질이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늘 내 안에 있다. 이번에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

이 땅에 불일이 빛난 지 1,700여 년 동안 교각스님과 같은 왕족에서 욱면과 같은 노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부처가 되었다. 승랑, 원효, 의상, 대현, 원측, 의천, 지눌 등 수많은 스님들이 동아시아 사상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그럼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불교를 압도하고 주력 종교로 부상하였을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 원인을 따져보아야 불교의 대안도 가능할 것이다.

①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흐름

- 서세동점의 20세기의 세계사의 흐름과 기독교가 서양 제국주의의 첨병 구실을 하였다.

② 기독교=서구화=근대화

- 기독교가 중세에 ‘주술의 정원’을 심화하던 것에서 일탈하여 근대적 합리성과 결합하였고, 이런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되면서 한국 대중은 기독교와 근대화를 동일시하였으며, 일정 정도 기독교 및 서양의 선교사와 성직자가 근대적 계몽을 선도하였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성이 강하지만, 그 기복성은 근대성의 틀 안에서의 기복성이다.

③ 미군정 이후 미국에 종속된 한미관계

- 미국은 한국을 미국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기독교로 사상적이고 종교적인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후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국 엘리트 및 대중의 기독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가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조직적이고 열정적이고 극단적인 성향과 결합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④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 수용

- 기독교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야 한다.”며 원래 교리상 자본주의와 맞섰다. 하지만, 중세 말기에 부자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연옥을 설정하는 등 자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해석에 몰두하고, 근대에는 막스 베버 등의 혁신적인 해석에 의해 청교도적 검약과 절제를 통한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면서 자본주의와 결합하였다. 미군정기 이후 청교도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미국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이것이 6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의 비약적인 근대화와 자본주의화와 결합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출세를 하고 돈을 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기독교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왔다.

⑤ 근대적 담론의 지배적 생산과 수용

- 기독교는 합리성, 인권, 자유, 평등 등 근대적 가치와 결합하는 작업을 통해 근대적 담론 생산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한국의 근대적 담론 대부분이 기독교를 바탕 사상으로 하고 있고, 엘리트 지식인의 대부분이 기독교도이거나 유럽과 미국의 유학파이기에 기독교의 담론 생산이 전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⑥ 근대 교육 시스템과 기독교의 결합

- 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근대교육 기관은 기독교도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와 연관을 갖는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사립대학이 교수채용 시 교회 집사나 장로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이들이 읽는 책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거나 은밀하게 깔고 있다.

⑦ 계몽된 엘리트들의 기독교도화와 이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선택

- 유교적 엘리트가 아직 중세의 무지몽매함에 머물러 있을 때, 근대화시기에 이들을 대체하면서 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기독교의 엘리트였다.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출세를 하려면 이들과 인맥을 형성해야 했고, 교회의 신도가 되는 일은 가장 손쉽게 이들과 끈끈한 연대를 맺는 길이었다. 특히 고소영정권이라 할 정도로 노골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는 현 정권에 와서 기독교세력의 권력 장악과 카르텔은 심화하고 있다.

⑧ 사회민주화와 참여, 활발한 사회적 실천

- 기독교와 천주교는 군사독재 시절 사회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빈민과 소수자에 대한 구제 등 사회적 실천을 꾸준히 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한편,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

⑨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와 조직화

- 기독교는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일단 신도가 되면 “교회 바꾸는 것이 마누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조직화한다.

⑩ 좋은 성직자들의 배출과 대중의 입맛에 부합하는 설교

- 100여 곳의 신학대학에서 매년 15,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그 중 약 40% 정도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 그 중 10%만 잡아도 매년 600명의 좋은 목회자가 배출되는 셈이다. 그들은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설교로 신도들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⑪ 목회자와 신도의 협력 및 참여 체계 구축

- 교회나 성당의 신도들은 단순히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국외자가 아니라, 목사나 신부와 함께 다양한 신앙활동과 사회봉사를 조직·기획하고 실천하는 주체들이다. 신도들은 이를 통해 신앙을 공고히 하고 주체로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⑫ 신부들의 청렴과 천주교 의례문화의 대중화

- 신부들의 청렴과 절제된 삶이 대중들에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하고, 성직자로서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천주교의 의례문화를 대중화하여 대중들이 천주교의 의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하게 된다.

3. 불교의 현대화

위에 제시한 열두 가지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된 이유이자, 상대적으로 불교가 위축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중흥책과 사회적 역할을 분야별로 모색해 보자.

① 서세동점의 세계사적 흐름과 역류

- 이것은 불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원인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사는 다시 서구화, 근대화, 자본주의화의 모순과 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이에서 유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도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서양에서는 불교도가 늘고 있다. 이는 서양이 물질적 풍요는 이룩하였으나 불안과 소외의 심화 등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의 해체, 환경위기 등으로 근대화와 자본주의화를 추구한 서양의 패러다임과 철학에 대해 한계를 느껴 그 반작용으로 불교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서양불교는 마음공부에 충실하며, 이 때문에 서양불교가 외려 역류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위축된 한 원인은 마음공부에 충실히 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 등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음공부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혁신을 하고, 서양처럼 근대화와 자본주의화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불교로 혁신해야 한다.

② 불교의 근대화와 기복불교의 청산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한 첫째 이유는 현대를 이룬 세 성과, 곧 과학기술, 합리성, 자본주의와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오랜 동안 기독교는 ‘계몽, 신식, 선진’이었고, 불교는 ‘미개, 구식, 후진이었다. 21세기 오늘에도 불교 교리의 전파와 학습은 중세시대에 머물고 있다. 대중들은 구조적 빈곤, 소외, 불안, 국가와 자본의 폭력과 억압, 환경 위기, 미디어의 조작, 재현의 위기 등의 고통 속에 있는데, 스님들은 2천여 년 전의 고(苦)에 대해서만 당위적으로 멸하라고 말한다.

교리의 현대화란 부처님의 말씀을 과학기술, 합리성,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새롭게 하되, 부처님의 뜻을 더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중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를 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리라.

이 작업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행할 일은 기복불교를 과감히 청산하는 것이다.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그것은 남기되, 신앙과 사상으로서의 기복불교는 일소해야 한다. 소망을 빌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소망과 갈등을 빚는 소망을 발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부처님께서 타인을 떨어트리고 내 아들을 붙여달라는 합격발원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미흡하나마 만해 한용운의 『불교유신론』 이후 불교와 근대성을 결합하려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④ 자본주의와 불교의 결합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불교

- 그동안 한국불교는 간화선 등 전통의 고수에만 진력하였지 자본주의와 결합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였고, 설혹 절집에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절 안과 시장에서 이중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절집에 들어온 신도조차 절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 한국불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보수적인 스님과 재가불자들은 불교와 자본주의를 결합하고 재해석하는 일을 수행하야 하며, 진보적인 스님과 재가불자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혹은 자본주의의 역기능인 물화(物化, reification), 소외와 불안의 심화, 공동체의 해체를 극복하는 대안의 모델을 불교에서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예를 들면 소외와 불안을 치유하는 마음수행법, 소욕지족(少欲知足)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태론적인 삶의 양식 제시,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 모델 개발과 실험 등).

⑤ 근대 및 탈근대적 담론의 지배적 생산과 수용

- 기독교는 합리성, 인권, 자유, 평등 등 근대적 가치와 결합하는 작업을 통해 근대적 담론 생산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20세기에 대중들도 합리성, 인권,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추구하였으나 불교는 이런 가치에 대해 침묵하는 바람에 대중들과 유리되었다. 돈점논쟁 등 불교교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불자들만의 담론이다. 살불살조(殺佛殺祖)의 마음으로 합리성, 인권, 자유, 평등 등 20세기의 가치와 더불어 생태, 생명, 네트워킹, 복지 등 21세기의 가치와 결합한 불교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담론화하여야 한다. 다행히 불교의 연기론과 생명사상, 화엄철학, 보살도는 이들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뿐더러 서양을 넘어서는 대안의 가능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구제역과 살처분에 대해 천도재를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사후약방문이다. 이보다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이에 관한 세미나를 하여 불교의 생명관에 입각하여 소를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기업형 축산업을 비판하고, 종단 차원에서 소-기계 패러다임에서 소-생명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부합하게 살처분은 물론 기업형 축산을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축산카르텔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개선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⑥ 근대교육 시스템과 불교의 결합

- 그동안 불교는 근대교육 시스템 외부에 있었다. 이 때문에 근대교육을 받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양의 사상과 기독교에 물들게 된다.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한 대형사찰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불교 동화, 불교 사상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글, 소설과 시 등을 교과서에 게재해야 하고, 재정이 넉넉한 스님과 불자들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⑦ 불교 엘리트들의 육성

- 계몽된 엘리트들은 계몽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하였고, 이들이 권력과 시장의 상층부를 점함으로써 이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조차 기독교를 선택하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동국대와 종단이 연합하여 불교엘리트들에 대한 장학제도 강화, 종단 차원의 불자를 위한 고시반 운영, 불자 CEO 과정 운영, 대중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의 활성화, 불교적 색채를 내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진리를 전하는 다양한 책의 출간, 그런 지식인의 육성 등이 따라야 한다.

⑨ 도시 불교화와 도시인의 일상에 스며든 불교

- 불교가 기독교처럼 공격적인 선교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통 산중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체제는 혁신해야 한다. 포교당과 사찰, 수행원을 도시 곳곳에 세우고 도시인의 일상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불교적 색채를 숨기고, 기업, 대학교, 백화점 곳곳에 “직장인을 위한 마음수행”, “대학생을 위한 마음 수행”, “주부를 위한 마음수행”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그곳에 참석하였더니 마음 하나는 평안하더라.”라는 반응이 나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에 소외와 불안을 겪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불교의 수행을 일상화하게 해야 한다.

⑩ 좋은 수행자들의 배출과 대중의 삶과 고통에 부합하는 설법

- 물론 승가대학과 스님들의 절대 양을 늘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프트 파워을 형성하는 것도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승가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 21세기 대중은 경전에는 없는 고통과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 지금 대중은 미디어의 조작에 따른 고통, 정치적 억압과 폭력에 따른 고통, 환경파괴에 따른 고통,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고통,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고독과 고통,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물화(物化)와 소외에 따른 고통, 해마다 수십 억 개체의 인간과 생명이 죽어가는 고통, 시뮬라시옹에 현혹되는 고통 등 중세와 분명히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세적 고통을 멸하라고 한다면 대중은 고승의 설법일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 스님들은 한국 대중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 함께 서서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와 대중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⑪ 스님과 재가불자의 협력 및 참여 체계 구축

- 지금 한국불교는 스님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재가불자들은 객체로 머물고 있어 절 언저리를 서성이다가 결국 절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님과 재가불자가 함께 기획, 조직, 재정, 실천, 신앙활동, 사회적 담론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⑫ 청규의 혁신과 불교 의례문화의 대중화

- 출가한 자를 승려라 할진대 온라인으로는 세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고 메일과 휴대폰을 통해 여신도와 은밀한 사연을 주고받는 스님, 육식을 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극히 일부지만, 이들로 인하여 대중들은 승가뿐만이 아니라 불교 자체에 대해 회의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현대사회에 부합하도록 청규를 새로 만들고, 계율과 더불어 자유로운 승가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스님들의 모노드라마에 그치고 있는 의례문을 현대에 맞게 간략하게 하고 한글화, 대중화하는 작업을 하여, 의례에 대중들도 함께 하고 이에 참여한 이들 가슴에서 절로 불심이 일게 해야 한다.

**3. 사회적 실천**

⑧ 하화중생과 보살행의 실천

승려대회, 최근의 종단 결사에 일반 대중들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불교가 사회적 실천을 등한히 해왔기 때문이다. 하화중생(下化衆生)은 당위적 언명이었을 뿐 사회적 실천 분야에서는 기독교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다. 대안으로 만든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조차 그 활동은 미미하며 거의 종단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수렴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불교에서 한 낱말만 남긴다면 당연 ‘연기’다. 연기를 제대로 깨달으면 세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연기 아닌 것이 없으니 실체로 분리시켜 보는 것은 망상임을 알고 이에서 벗어나 실상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이 서로 조건이 됨을, 그리하여 나와 깊은 연관을 갖는 인드라망임을 깨닫는 것이다. 서로 싸우던 두 사람이 제3자로부터 실은 이복형제라는 것을 알고서 싸움을 멈추고 더 나아가서는 형이나 아우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서 보듯, 이제껏 타자로 간주하여 배제와 폭력을 행사하던 다른 생명이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실상을 깨닫고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이 생긴다. 유마경의 말씀대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중생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이를 치유하는 실천을 행할 때, 대중들은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을 받아들이리라. 이제 종단을 중심으로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단순히 구제책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포용하는 불교공동체,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역기능과 모순을 극복한 대안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이를 곳곳에 건설해야 한다.

**4. 사회적 담론의 생산과 소통**

한국 불교는 절집 안에서만 큰소리를 쳤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시회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결국 다른 종교와 헤게모니 투쟁에서 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교가 안건 설정(agenda setting)을 하고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한 예는 거의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사회담론을 생산할 씽크탱크(think tank)나 인물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님들이 불교는 알아도 시대를 읽고 분석하고 평가할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교육체제 또한 이를 등한히 하였다. 사회적 안건을 설정할 미디어 시스템이 부족하고 불자 가운데 메이저급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드물다. 아울러 어떤 안건을 담론으로 확대재생산하려면 대중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정토회나 불교환경연대를 제하고는 대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운동 조직이 없었다. 최근에 불교환경연대조차 수경스님의 잠적 이후 별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광우병, 4대강, 구제역 등, 불교철학을 통하면 창조적이면서도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질 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도 이벤트성의 시늉만 있었다. 구제역 사태 때 천도재를 할 인력과 비용으로 불교의 생명관에서 나온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였다면, 불살생의 마음이 대중들의 가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으리라.

이 원인에 부합하는 대안은 불교사회연구소와 같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스님과 재가불자를 최대한으로 네트워킹하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심층분석과 토론 및 이론화 과정을 거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스님들이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혁하여야 하며, 종단과 연구소 차원에서 교계 신문을 넘어 메이저급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관련인사가 기고하여야 한다. 브루나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스님과 사부대중의 협력 및 참여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대중조직을 결성하며, 사찰과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야 하리라.

**5. 권력으로부터 독립**

힘을 가지려고 종교가 권력에 기대는데 그럴수록 종교는 이를 잃는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가. 권력에 기대는 순간 권력은 더 이상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수인으로 삼으며, 이 순간 상층의 인사 몇몇, 특히 종단의 실권자나 권력인사와 친한 스님 몇몇만이 안수정등(岸樹井藤)처럼 권력의 단맛을 찾아 교리를 버리고 스스로 권력이 되며, 나아가 교리를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파급효과로 정치인, 종단의 권력자 등 권력을 가진 자 주변에 떡고물을 바라는 ‘파리’들이 모여들고, 그럴수록 이를 역겨워하는 참신앙을 가진 이들은 종단이나 절을 떠나기 마련이다.

현 정권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박해를 당하면서 모처럼 한국 불교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종단은 부디 이 좋은, 한국 불교 중흥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독립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때 종교는 권력에서 벗어나 참모습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교리는 이데올로기로 전환하지 않고 진리가 될 수 있으며, 오로지 부처님만을 바라보는 스님과 불자들이 모여든다.

③ 대미 자주성 확립

- 이것은 불교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한미관계가 식민 내지 종속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불교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문화적 대응이다. 한국 불교문화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대중들이 수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미국 기독교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한다.

6. 수행법

송의 『석자비탁집(釋子非濁集)』에 보면 신라사람 승유(僧兪)가 아함경을 공부하는 이를 보고 나무라자 꿈에 천동자(天童子)들이 나타나서 승유를 때리며 “소승으로서 사다리를 삼아 대승에 이르는 것이 그대 나라 법식이다.”라고 말한다. 『삼국유사』 〈흥법〉편 ‘원종흥법 염촉멸신(原宗興法 厭髑滅身)’조에서도 “대, 소승의 불법이 서울의 인자한 구름이 되어 여러 곳의 보살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원효의 저서에도 대승과 소승의 경전, 대승적 해석과 상좌불교적 해석이 회통하고 있다. 이제 한국 불교도 틱낫한 스님이 행한 것처럼, 간화선을 종지로 하되, 상좌불교의 교리, 계율, 위빠사나의 수행법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양자를 종합한 것을 21세기 한국 불교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7. 한국 불교의 미래

서양에선 왜 불교도가 늘고 있고 상당수 석학들이 다투어 불교를 공부하는가. 그들은 현대사회의 위기, 곧 이성의 도구화, 소외와 불안, 공동체의 해체, 환경위기 등의 대안으로 불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서양 불교는 마음공부에 충실하고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 다행히 불교는 탈현대의 모색과 통하는 점이 많다.

실체론과 이분법에 머물던 서양학계에 소쉬르는 이를 일소하고 관계의 사유의 지평을 열어 인문학의 혁명을 하였는데, 실은 그가 하버드대에서 불교 책자를 접하고 연기론적 사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소쉬르의 연기적 사유는 거의 모든 서양의 철학자와 사상가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서양 사상계는 실체론과 이분법을 지양하고 관계와 차이의 사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데리다. 라깡, 들뢰즈, 레비나스, 지젝 등 지금 현재 서양의 학계를 주도하는 석학들이 모두 불교의 영향을 직접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받아 연기론적 사유로 서양의 인문학을 재해석하고 있는 이들이다. 필자는 원효의 화쟁 철학만으로도 현재 서양의 인문학이 부딪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틱낫한 스님은 프랑스의 자두마을(Plum Village), 미국의 단풍림승원(Maple Forest Monastery)과 청산법원(Green Mountain Dharma Center), 녹야원 승원(Deer Park Monastery)을 만들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양인의 가슴에 부처님이 찾아 들게 한다. 한국 절은 중국처럼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거대하지도, 일본처럼 음습하지도 않거니와 두려움을 주어 압박하지도 않는다. 한국 절은 주변의 능선과 숲과 냇물과 어울려 포근하게 자리하면서 늘 평안하게 감싸준다. 그리고 거기에 한 분쯤은 늘 해맑게 웃으면서 누구든 그 품에 안고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들려 주실 스님이 계시다. 그러기에 한국 절은 세사에 지친 누구든 찾아 며칠을 지내면 플럼 빌리지 이상으로 불심이 들게 하리라. 한국불교가 지금 인류사회가 맞은 위기에 굳게 발을 디디고 서서 21세기 디지털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를 창조한다면, 미래는 밝다.

하지만, 파괴 없이 창조는 없다. 파사(破邪)를 하지 않으면서 어찌 현정(顯正)을 바라는가. 지금이라도 과감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온갖 삿된 것을 쳐버리고 시스템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개혁하여야 한다.